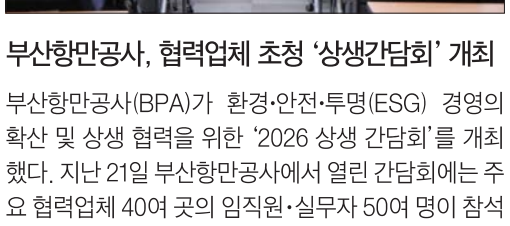
NH농협은행,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실천

NH농협은행은 지난 22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경기도 의왕시 소재 NH통합IT센터에서 'NH 에너지 다이어트(Energy Diet)'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NH농협은행 테크(IT)사업부문 임직원들이 'NH 에너지 다이어트(Energy Diet)' 캠페인을 진행하며 활동 구호를 외치고 있다. /NH농협은행

소원 담아 우주로… 보령, 메시지 벽 캠페인

보령은 전국 주요 종합병원과 대학교에서 메시지 벽을 설치하고 '달로 보내는 나의 소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시민 참여형 행사로 수집한 메시지는 달 탐사선에 탑재될 예정이다. /보령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초청 '상생간담회' 개최

부산항만공사(BPA)가 환경·안전·투명(ESG) 경영의 확산 및 상생 협력을 위한 '2026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협력업체 40여 곳의 임직원·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부산항만공사

여경協, 쇼피코리아와 여성기업 동남아 진출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유한회사 쇼피코리아컴퍼니와 '여성기업 제품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역삼동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여경협과 쇼피코리아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창숙 여경협 회장(오른쪽)이 아만다 엉 쇼피코리아 지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롯데칠성음료, 페스티벌서 핫식스 글로우 홍보

롯데칠성음료가 남이섬에서 열리는 '디에어하우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에너지 음료 '핫식스 글로우'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방문객들이 디에어페스티벌에서 핫식스 글로우 시음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美 더 CJ컵 찾은 이재현 "K-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확대"

〈CJ그룹 회장〉

브랜드 체험 공간·사업 전략 점검
북미 시장 소비자 접점 확대 추진

CJ그룹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K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미국 텍사스 현장을 직접 찾아 K푸드·K뷰티·K콘텐츠 체험 공간을 점검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을 주문했다.

25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에서 열린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방문해 그룹 브랜드 운영 현황과 현지 관람객 반응 등을 살폈다. 이 회장이 미국에서 열린 더 CJ컵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더 CJ컵은 단순 스포츠 후원을 넘어 CJ그룹의 K라이프스타일 마케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회 기간인 21~24일(현지시간) 동안 약 24만명의 갤러리가 현장을 찾으며 역대 최대 관람객 기록도 새로 썼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미국 더CJ컵 현장을 찾아 체험 공간을 점검했다. /CJ그룹

CJ그룹은 골프장 중앙에 조성한 '하우스 오브 CJ'를 중심으로 비비고, 올리브영, 뚜레쥬르, SCREENX 등 그룹 핵심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했다. 관람객들은 K푸드 시식과 K뷰티 체험, 콘텐츠 관람 등을 함께 즐기며 축제형 공간을 경험했다.

특히 올해 하우스 오브 CJ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0% 확대된 750㎡ 수준으로 조성됐다. 페어웨이 주변에는 비비고 컨세션과 K스트리트푸드 브랜드 '두루미' 부스 등이 마련돼 떡볶이와 만두 등 K푸드를 경험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리브영은 럭키드로우 이벤트와 체험형 콘텐츠를 앞세워 북미 MZ세대 공략에 나섰다.

이 회장은 현장에서 "더 CJ컵을 단순한 골프 대회를 넘어 미국 내 K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룹의 글로벌 사업 영역을 빠른 속도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CJ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K컬처 확산 흐름을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접점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K팝과 한국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체험형 마케팅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은 CJ그룹의 핵심 전략 지역으로 꼽힌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를 중심으로 북미 식품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CJ올리브영 역시 글로벌 사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더 CJ컵 운영 경험은 향후 북미 시장 내 브랜드 확장과 유통망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쿠팡풀필먼트, 어르신에 생필품 나눔

진해구청과 생필품 꾸러미 전달
올해로 3년째 사회공헌 활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사회 상생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CFS는 지난 22일 진해구 일대 홀몸어르신 80가구에 두유, 라면, 김, 양념세트 등 생필품이 담긴 '와우 동행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진해구청과 연계해 마련됐으며, CFS 창원1·2·3·4센터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조를 나눠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이종근 진해구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쿠팡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지난 22일 진해 웅동 일대 홀몸어르신의 집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쿠팡

정한모 CFS 정책실 전무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FS는 '와우 더 소사이어티(Wow the Society)'를 슬로건으로 전국 단위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매년 5월 풀필먼트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홀몸어르신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원선 기자

유한양행, 미래 헬스케어 인재 키운다

내달 7일까지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 여정 속에서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사회를 이끌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유한양행은 오는 6월 7일까지 유일한 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유일한 아카데미 2026'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 30명을 선발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생 및 프로그래밍 전공자를 우대해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혁신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유일한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보건·의료 사회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젝트 중심 학습이 이뤄지며 학계 전문가 특강, 현장 검증, 현업 임직원의 멘토링 등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성과공유회 '유일한 임팩트 포럼'을 통해 기업·재단·임팩트 투자·AI솔루션 분야 등 각 영역 전문가 심사위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교육 과정은 7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10회로 구성돼 매주 화·목요일 오후 1~5시 유한양행 본사 옆 새롭게 개관하는 윌로우하우스에서 진행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마주한 보건, 복지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향후 미래 헬스케어 시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농협하나로마트 내 다이소 입점

생활용품 품목 늘어 편의 증진 기대

농어촌 지역 농협하나로마트 영업점에 다이소 매장이 입점한다. 농협은 이 같은 양측의 유통 업무 협력하에, 농어촌 주민을 위한 생활용품 품목 개수가 늘어나는 등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25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지난주 아성다이소와 '농협하나로마트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주민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신상품 개발 및 다이소 입점 확대 ▲상호 연계 금융서비스 마련 ▲정기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쇼핑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중진공, 국민 참여 '청렴 AI 숏폼 공모전'

총 상금 300만원, 기관장 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한 중진공 AI+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25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중진공의 청렴 문화를 대내외에 확산하고 부패 경험 '제로(0)' 달성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공정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에 앞장서는 중진공'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을 통해 '건전한 공공재정에 기여하는 중진공'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내부통제로 '스마트 청렴을 실현하는 중진공' 등 총 3개로, 국민이 바라는 '청렴한 중진공'을 담아내면 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AI를 활용해 60초 이내의 세로형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특히, 중진공은 AI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AI 영상 제작 방법'을 공식 채널에 게시하는 등 참여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수상작의 최종 순위는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7편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중진공 임직원 평가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결정한다.

시상 규모는 총 300만원이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중진공 이사장 표창을 수여한다.

중진공 이창섭 기획관리이사는 "발굴한 아이디어는 내부 교육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접수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 사 ◆시사IN △편집국장 이오성

부 음 ▲문홍구(文洪久·한시집 '우서집' 저자·한국전쟁 참전 유공자·향년 96세)씨 별세, 문갑임·문영목(전 농어촌공사 부장)·문영순·문영환(일성 대표)·문숙란·문의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수석위원)·문의숙씨 부친상 = 24일 오후 5시께, 거창 서경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55-945-0130.
▲김후미자씨 별세, 윤은경(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윤종철·윤미경씨 모친상, 유준걸(변호사)·정서진씨 장모상, 박희정씨 시모상 = 2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105호실, 발인 26일 오전, 장지 영락공원. 051-893-4444.